

3. Why Jesus?

2023.2.5.

● Why One Way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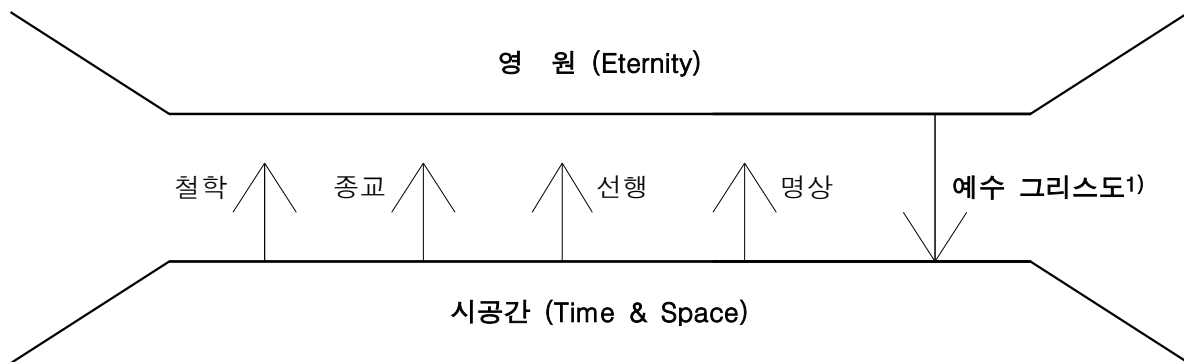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겠고요

인간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결론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로마서 3장 10~12절)

⇒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형법상의 죄인이 아닐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부모님께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셀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슬픔과 절망, 싸움과 분열, 어둠과 사망이 인간 역사를 드리우는 먹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일방통행로(One Way)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the Key)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브리서 10장 19~20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물 승강기 앞에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나요? <Do not use elevators in case of fire>

만약 고층건물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15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강기나 계단을 사용하지 말고 건물밖에 깔아놓은 대형 Air-mattress로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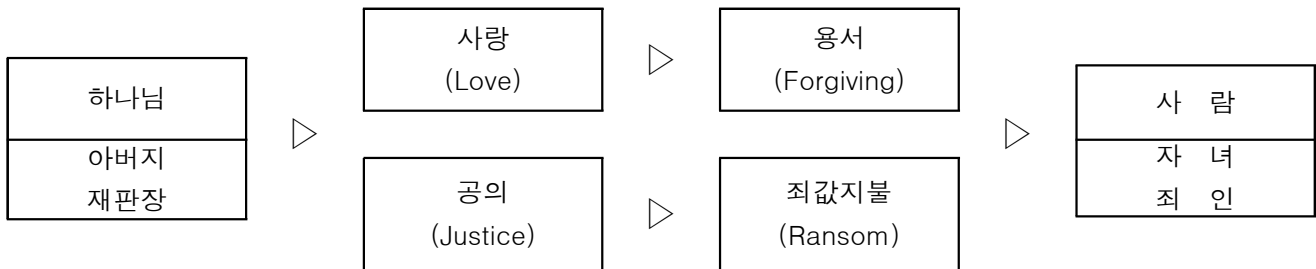
1) 예수(Jesus) =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1:21)
그리스도(Christ)=메시아(the Anointed) “바로 그 기름부음을 받은 자.”

● Why Jesus on the Cross?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불쌍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길을 만드셔서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린도전서 1장 22~24절)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용서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구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질서를 어기면서 죄를 눈감아 줄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마치 죄인인 인간이 법정에서 있는데 재판정의 판사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법복을 벗고 내려와 죄인인 자녀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나를 때려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love)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ransom)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베드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1만×5억=5,000,000,000,000원) vs 100데나리온 빚진 자(100×5만=500만원)

● Why not sign on the contract?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자를 쫓아다니면서 빚을 탕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싸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Contract	
NOV.7.2007. 갑 : 하 나 님 을 : _____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로마서 3장 23~24절) ⇒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서명: _____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한복음 1장 12절)	